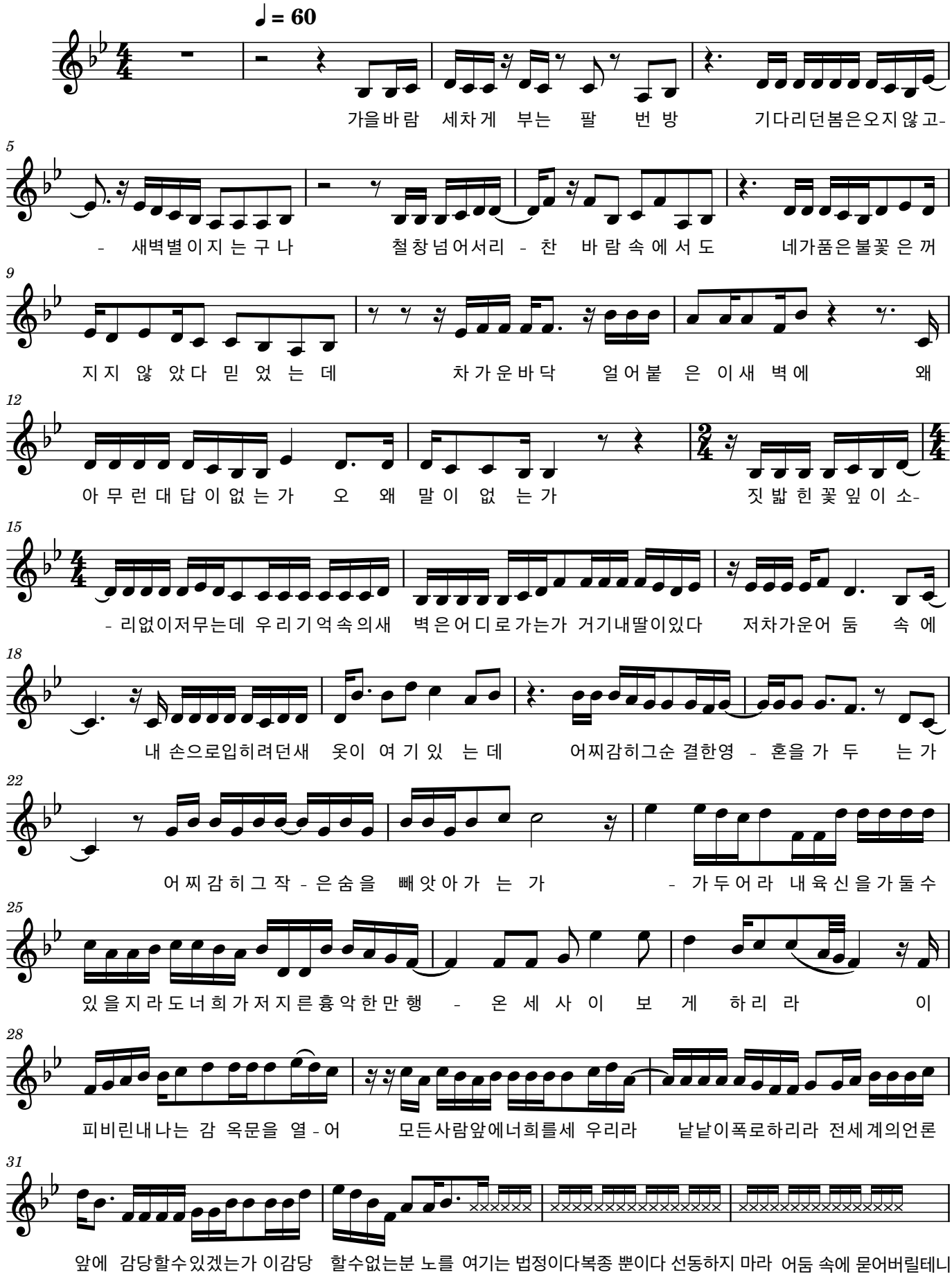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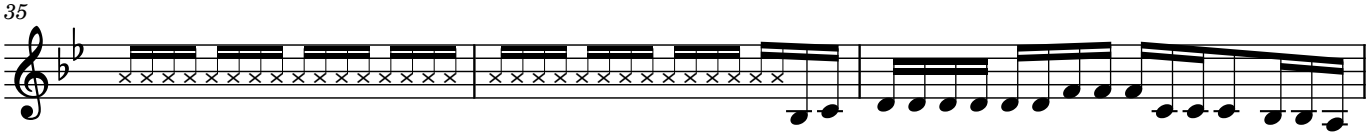
이제 집으로 가자


♩ = 60
가을바람 세차게 부는 팔 번 방 기다리던봄은오지않고-
5
- 새벽별이지는구나 철창넘어서리 - 찬 바람속에서도 네가품은불꽃은꺼
9
지지 않았다 믿었는데 차가운바닥 얼어붙은 이새벽에 왜
12
아무런대답이없는가 오 왜 말이 없는가 짓밟힌꽃잎이소-
15
- 리없이저무는데 우리기억속의새 벽은어디로가는가 거기내딸이있다 저차가운어 둠 속 에
18
내 손으로입히려던새 옷이 여기있는데 어찌감히그순결한영 - 혼을가 두 는가
22
어찌감히그작 - 은숨을 빼앗아가 는 가 - 가두어라 내육신을가둘수
25
있을지라도너희가저지른흉악한만행 - 온 세 사 이 보 게 하리라 이
28
피비린내나는 감 옥문을 열 - 어 모든사람앞에너희를세 우리라 낱낱이폭로하리라 전세계의언론
31
앞에 감당할수있겠는가 이감당 할수없는분 노를 여기는 법정이다복종 뿐이다 선동하지 마라 어둠 속에 묻어버릴테니

3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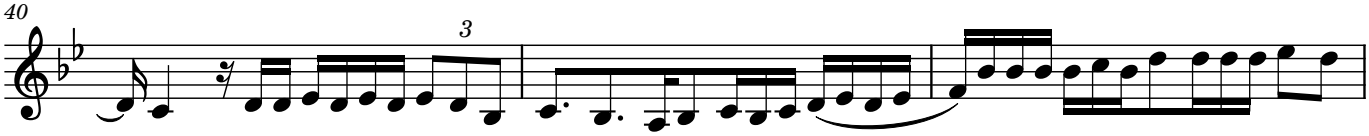
고문의 흔적은 절대 나가지 못한다 조용히 나가라 빗 자 국 으 로 가 득 찬 너 의 마 지 막 길 을 어 미

3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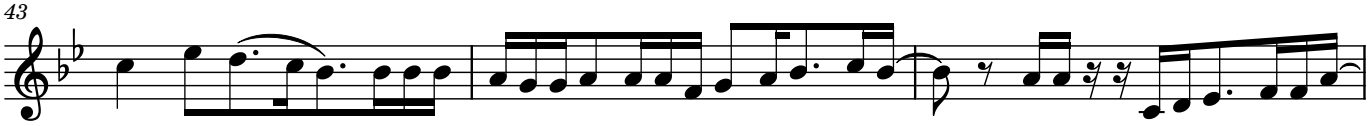
가 눈 물 로 씻 어 내 어 안 으 리 라 비 록 소 리 없 는 장 례 식 깃 발 하 나 없 을 지 라

40



도 네가남긴새벽의서곡 은 멈 추지 않으리니 어둠이깊을수록 새벽은멀 지

43



않 았 다 - 그녀가 흘린피가 이땅의씨 앗이 되리 가자 관순아 이제 집-

46



- 으로 가 자 - - 네가시 작한이투쟁을 우리가끝까지 기억하리 라